

시(詩) 속에 소통·평화가... 시 좀 읽으세요

동국 프라이드 지성 콘서트 세 번째 강연 - 신경림 시인

시(詩)로서 농민의 애환을 노래해 온 신경림 시인이 10월 4일 동국대 강단에 섰다. 동국대 프라이드 지성 콘서트 세 번째 강연으로 '동국과 문학인의 삶'을 주제로 마련된 강연에서 신경림 시인은 동국대 재학 시절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과의 일화, 50년 넘는 시에 대한 철학과 젊은이들의 문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문학은 강연으로 나오지 않는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가장 듣고 싶은 강의가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의 강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주 시인과 조지훈 시인은 1년에 2-3번 밖에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두 분은 항상 '문학은 강연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훈 선생님은 강연보다 술을 마시며 제자들과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문학은 선배가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속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문학은 폭력과 중요성을 없애 요즘 세상에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시인대회에서의 일화입니다. 콜롬비아는 마약 문제, 내전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아외에서 시인들이 모임을 가지면 3000-4000명씩 군중이 모였습니다.

원래 세계시인대회가 열린 메디진 시는 거의 매일 밤 살인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폭력 사태 등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인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는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 시인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인대회를 열자 도시의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 든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대화는 콜롬비아 국가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브라질과 칠레 등 남미 차원으로 확대 개최됐습니다. 범죄율은 메달린시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에서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도 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미 전체에서 하나의 축제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 그리고 문학은 눈에 보일듯 보이지 않을 듯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시를 많이 읽습니까? 저는 몇 일 전 미담문학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에서 올라온 작품 중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예선 통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다른 화법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통과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시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긴 설명이 아닌 짧은 말로써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정주 '동천'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 옮기어 심어 놔더니
동지 설날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봉하며 비끼어 가네

짧은 시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무엇인가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통은 말로서만이 아닌 보이는 것,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자들, 평론가들은 일만 열면 '요즘 시집이 안팔린다, 문학의 위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시집이 많이 팔리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 백석은 시집을 300부 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다. 시인 서정주의 《화사》도 500부 밖에 찍지 않았습다.

제 시집을 얘기하면 1973년 처음 시집을 냈는데 내준다는 출판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집을 내고 싶어 할 수 없이 자기 돈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평론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신문에 내지도 않았습다. 출판사 근무할 때 다른 시인들에게 보내면 시집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집을 많이 읽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상업 출판으로 시집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서정주 김광석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을 포함한 몇몇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입니다. 창조나, 민음사 같은 대형출판사에서 시집을 상업출판하고 몇 만부씩 나가는 시집이 심수종은 되니 안팔린다고 아우성 칠 것은 아닙니다.

시인들이 격정해야 할 것은 예전처럼 시를 재미있게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에서 소통을 더 중시한다면 시가 더 많이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는 설명이 아니다. 피부로 읽는다. 시를 읽으면서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시는 설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시의 재미를 놓치고 맙니다. 시는 보여준다는 것, 산문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시인들이 자주 설명을 하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말을 빼도 되는데 넣느냐'고 지적하면 대부분은 '독자들이 잘 모를까봐서'라고 답합니다. 모르는대로 맛이 있습니다. 다시 조지훈 시인의 강연으로 돌아가봅시다. 조지훈 시인은 항상 대학 강단에서 문학은 책 읽는 습관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 교수가 많은 지식을 줄려고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문학을 공부해서는 규모가 작은 시인 밖에 배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그 길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시인이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라는 시도 있습니다. 당시 딸을 낳아 시집을 잘 보내는 것은 잘사는 집의 얘기였습니다. 웬만한 집은 '딸을 팔아서 굶어 죽지 않았구나'했습니다. 조 몇가마나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딸이 팔려서라도 가서 잘사는 집에 가야 굶어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시를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를 다시 쓴다면 처한 현실을 시 속에 담아서 무엇인가 우리 감정을 형상화해왔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시가 바로 '농무'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시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의 힘을 기르기 위해 저는 학교 다닐 때 '갈대'라는 시를 통해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등단하니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시인으로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글 쓰는 것이 하잘 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는 6·25전쟁 직후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판국에 시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사회에서 국민들이 고통스런 삶을 사는데 그와 관계없는 시를 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의 회의감이 들었고 시를 쓰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무렵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봉암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통일하면 무력통일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청계천 고서점을 전전하며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이 당시 많이 체포됐습니다. 그 때 저는 '서울에 있으면 안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956년에는 아침 점심 굶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신문에 어디 어디서 굶어 죽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 시대 시인들 재평가 되어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당시, 아니 그 전대의 시인들에 대한 평가도 새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진 법관은 6·25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총과 칼로 위협당해 일을 해도 무기징역을 받던 시기입니다. 당시를 살지 않고, 당시 삶을 모르고 그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담 서정주 선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미담 시인학교 교장을 맡았고 미담 문학상도 심사했습니다. 어떤 후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나가.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 일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미담 서정주 선생이 친일시를 쓴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친일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일 행위 때문에 미담의 시까지 폐기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라는 것을 흑백논리로 본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다른 의미들을 음미하는데서 맛이 납니다. 당시 시인들에 대한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켜질 것입니다.

시는 낭만을 주어야 한다. 조봉암 사건에서 1심을 담당한 유병진 법관의 얘기입니다. 이 법관은 당시 상황에서 평화통일이 어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가 하며 조봉암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유 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계엄법에서는 판결은 무죄, 15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4가지로만 됐을 정도입니다.

저는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좌우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 꿈을 주는 낙관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경림 시인은... 신경림 시인은 1936년 4월 6일 충북 증평에서 태어났다. 1960년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이던 1955-1956년 《문학예술》에 이한직의 추천을 받아 시 '낮달' '갈대' '석상'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섰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며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현대문학사, 희문출판사, 동화출판사 등에서 편집일을 맡았다. 한때 절필하기도 했으나 1965년부터 다시 시를 창작했다. '원격자'《동국시집》,1970), '산악기행'《월간대리》, 1972), '시제(詩祭)'《월간중앙》, 1972) 등을 발표했다. 점차 초기 시에서 두드러진 관념적인 세계를 벗어나 막연하고 정제된 농촌이 아니라 필박박한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했다. 신경림 시인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73년 제1회 만해문학상, 1981년 제8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시집에는 《새재》(1979), 《달님세》(1985), 《남한강》(1987), 《우리의 북》(1988), 《길》(1990)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평론으로는 《농촌현실과 농민문학》(1972), 《살의 진실과 시적 진실》(1982), 《역사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시》(1984), 《민요기행》(1985), 《우리의 이해》(1986) 등이 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잊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법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무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정,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돌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봉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재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거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